

서사무가에 드러난 시련의 양상과 의미

한 양 하
(경상대학교 강사)

- I. 연구목적과 방법
- II. 주체별 시련의 양상
- III. 시련의 과정
 - 1. 역할 탐색
 - 2. 역할 인식
 - 3. 역할 수행
- IV. 시련의 의미
 - 1. 존재의 자각
 - 2. 가족의 완성
 - 3. 신질서의 창조
- V. 나오며

<국문 요약>

서사무가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은 통과의례적 성격을 갖는다. 통과의례를 통해 성인으로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시련의 주체에 따라 시련의 양상이 달라지며, 그 민족의 특수성에 따라 서사의 차별성이 있을 것이기에 시련의 의미 또한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사무가에 드러난 시련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신가유편』의 3편, 『조선무속의 연구』의 2편 『제주도 무가』의 본풀이 10편 등 모두 15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시련의 주체를 남자 어른, 여자 어른, 소년 주인공, 소녀 주인공으로 나누어서 보았다.

시련의 원인은 대부분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자식이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부모가 없어서 시련을 겪게 된다. 이런 시련의 원인은 주인공들이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게 한다. 가족을 완성해야 할 임무를 지닌 주인공들은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식을 낳거나, 남편을 찾기를 수행하며, 부모를 찾거나 생명을 구하게 된다.

주인공들은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 존재들로 자각된다. 정성이 한 근이 부족해 딸로 태어난 존재들은 아들을 낳고서야 가족의 대를 이어 신직을 받게 된다. 소년 주인공들은 가족을 완성함과 동시에 부계의 가부장적 권위를 대신하게 되며,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는다. 그러나 소녀 주인공들은 부계의 가부장적 권위와 지위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된다. 소년 주인공들은 부계질서를 공고히 하면서도 이전 아버지들의 질서와는 다르다. 소년들은 가족을 찾아 구성원을 완성하며, 효라는 가치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악의 정치를 통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 소녀 주인공은 아버지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간다. 소년 주인공과 소녀 주인공들은 기존 사회에 편입되기보다는 신질서의 창조자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서사무가, 시련, 주체, 가족의 완성, 존재의 자각, 신질서의 창조

I. 연구목적과 방법

대개의 서사무가는 주인공들이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영웅적 능력을 획득하고 신직을 얻게 된다. 여기서 시련은 주인공을 영웅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겪는 시련은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아이에서 어른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과정이며, 제의적으로 본다면 통과의례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¹⁾ 그러나 시련의 의미를 개인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굳이 가혹한 시련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상징을 담을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사무가에 드러나는 시련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시련 모티프가 드러나는 서사무가를 대상으로 하여 시련의 주체에 따라 시련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서사무가란 서사를 지닌 무당들의 굿노래를 말한다. 서사무가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서사무가가 이야기 문학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서사무가는 구비전승 되면서 설화문학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고전소설에서 현대소설, 현대 창작동화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의 뿌리가 되어 왔다. 바리공주는 일곱 짝 딸이라는 이유로 버려졌지만 부모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갖은 시련을 겪는 무가인데 버려짐, 구약노정, 부모님 봉양 등의 모티프들은 후대 문학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는 고전소설 「숙향전」, 「심청전」 등의 작품에서 효의 모티프로 이어지며, 황석영의 현대소설 『바리데기』(창비, 2007), 『심청, 연꽃의 길』(문학동네, 2007)등에서도 드러난다. 또 현대 창작동화에서도 주인공의 시련과 효에 대한 모티프들은 여전히

1)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59집, 한국언어학회, 2006. 심치열은 제주도 일반본풀이 서사에서 추방은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통과제의이며 시련으로 능력을 실현하거나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으며, 업무를 완수하여 신으로 좌정한다고 보았다.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련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발달심리학의 면에서 시련은 인간의 형태변화과정에서 인간의 성숙과정이며, 인류학적 관점에서 시련은 성인이 되기 위한 입문의식으로 해석한다.²⁾ 이런 입문의식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원시문화 속에서 문화현상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인류문화의 다원발생설에 따라 인류의 기본생각이란 인간이 가지는 믿음과 풍습의 토대, 그리고 생과 사에 대한 기본적 표상이기에 지구상의 어느 민족에게서도 동일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프랑스 민속학자인 아놀드 반 게넵은 의례들의 내적 메커니즘, 의례들의 논리, 의미, 기능을 중시하여 출생, 사회적 성숙, 약혼, 결혼, 임신, 입교(入敎), 장례와 관련된 의례들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 의례들을 ‘통과의례’라고 하였다.³⁾ 반 게넵의 입문의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분리단계로 분리의식이, 2단계는 중간단계로 문지방변화의식이, 3단계는 통합단계로 편입의식이 거행된다고 하였다.

엘리아데는 입문의식이란 통과의례의 하나로서 ‘인간의 종교적·사회적 지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일단의 의례와 구술적 훈육’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입문의식이란 인간을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 또는 하나의 사회적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문화현상으로 보았다.⁴⁾ 엘리아데는 입문 의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인간을 아동의 상태에서 성인의 상태로 바꾸어 주는 성인식이다. 둘째, 원시부족에게 발견되는 남성결사조직 같은 특정

2) 김정철, 「입문의식동화를 통해 본 남녀 차이-문화텍스트로서의 동화」, 『독일어문학』 vol41, 한국독일어문학회 2008.

3) 반 게넵,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40쪽. 통과의례는 분리의례(rites of separation), 전이의례(transition), 통합의례(rites of incorporation)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하위 범위가 모든 의례 유형에서나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분리의례는 장례식에서 뚜렷하고, 통합의례는 결혼식에서 뚜렷하다. 전이의례는 임신, 약혼식, 입사식(initiation)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4) 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사, 2000.

비밀결사에 들어가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의식이다. 셋째는 샤먼의 신내림 의식으로 보았다.

서사무가에서 시련은 위의 논거들에 의해 통과의례라는 측면에서 이미 충분한 의미해석을 거쳐 왔다. 그러나 서사무가는 민족이나 부족들마다 구연되는 상황과 의례의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결연의 형태, 욕망에 대한 해소 방식 등에 따라 시련의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자 한다. 시련을 겪는 주체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어른인가 아이인가에 따라 시련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며, 시련의 결과 또한 그 사회 속으로 편입되어 성장하는 시련극복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련 속에서 죽거나, 좌절하는 경우라면 성장의 측면에서 파악할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 개념의 분리단계, 전이단계, 통합의 단계로 이행하는 통과의례 또한 시련을 거쳐 통합단계에 이르는데, 통합단계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사회질서 체제로의 통합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체에 따라 그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과 의례의 보편적인 절차들에 의하면 분리, 전이, 통합의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지만 주체, 양상에 따라 시련의 의미는 달리 규정될 수 있으며, 민족의 특성이나 역사,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즉, 반 개념이 통과의례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주체와 양상에 따라 좀 더 세분화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서사무가에 드러난 시련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신가유편』의 3편⁵⁾, 『조선무속의 연구』의 2편⁶⁾ 『제주도 무가』의 본풀이 10편⁷⁾ 등 모두 15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손진태의 『조선신가유편』은 우리나라 최초의 무

5) 손진태 편,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 동경향토연구소, 1930.

6) 赤松智城, 심우창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7) 현용준, 현승완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가집으로 함흥, 흥원, 동래, 중화 등의 현지자료를 모은 것으로 그 가운데 서사가 뚜렷한 <창세가(創世歌)>, <숙영랑앵연랑신가(淑英郎鶯蓮娘神歌)>, <도랑·청정랑신가(Toran'郎·Chŏn-Jŏn'娘神歌)>를 대상으로 한다. 또 『조선무속의 연구』는 1937년 赤松智城·秋葉陵 공저로 가장 많은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시련의 서사가 분명한 <바리공주>와 <성주본풀이>를 대상으로 하였고. 여기에 실린 비슷한 무가들 보다 후대에 채록된 것이지만 시련의 서사가 자세하고 정확한 현용준의 『제주도 무가』에서 본풀이 10편을 대상으로 하였다.⁸⁾ <천지왕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차사본풀이>, <맹감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본풀이>다.

위의 서사무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서사의 화소 단위에 따라 시련의 주체와 원인, 극복 방법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우선 서사에서 각 주체들이 겪는 시련의 원인과 시련의 과정, 극복 방법을 분류해 내고, 시련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상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II. 주체별 시련의 양상

시련의 주체는 크게 성별에 따라 남자와 여자, 연령에 따라 어른과 아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련의 주체에서 성별에 따라 시련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어른과 아이에 따라 시련의 양상이 다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어른과 아이를 나누는 기준은 혼례를 중심으로 보았다. 혼례를 치른 인물이 시련을 겪는 것은 어른의 시련으로 보았고, 소년과 소녀의 단계에서 시련을 겪다가 혼인을 하는 것은 소년과 소녀의 시련

8)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5면. 장주근은 제주도는 곳과 친연성을 가진 지역으로 육지와 달리 섬이라는 폐쇄적인 지형성이 우리 무속신앙 및 서사무가를 간직하게 된 요인으로 보았다. 육지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위치와 한국 제일의 큰 섬이라는 면적과 일정한 인구를 간직해 왔다는 세 조건을 들었다.

으로 보았다. 일생의례의 측면에서 성인식과 혼례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격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위의 분류에서는 서사의 이면에 드러난 화소를 중심으로 보았기에 시련의 주체를 서사의 외면에 드러나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로 분류하여 보았다. 그러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살펴본다면 표면적인 것밖에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인물의 기능에 따라 주동 인물, 반동 인물, 주변 인물로⁹⁾ 나누어 보았다. 서사무가에서 시련의 주체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주동 인물이 행하는 서사의 목적이 반동인물에 의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주동 인물이 서사를 이끌어 가는 인물에 속한다면 반동 인물은 주동 인물을 방해하고,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시련의 양상을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주체가 시련을 겪는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 남자 어른의 시련

서사무가에서 시련을 겪는 인물은 여자 주인공이 많을 듯하지만 실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서사무가 15편 가운데 15편 모두 남자 어른의 시련이 드러난다. 남자 어른의 경우 주동적 인물은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왕, <차사본풀이>의 강림, <맹감본풀이>의 소사만이, <창세가>의 미륵님, <성주본풀이>의 황우양을 들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와 <창세가>는 천지창조의 내력을 담은 무가인데 천지왕과 미륵님은 혼

9)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반동인물연구」, 『고소설연구』 제14집, 한국고소설학회, 2002, 94-95쪽.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쓰이던 인물 구분법을 차용하여 프로타고니스트를 주동인물, 안타고니스트를 반동인물, 트리타고니스트를 주변인물로 쓰며,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인물은 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실을 하고 있어 반동인물과 주동인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주동인물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교조적 결론을 지양하고 다양한 인간상을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

돈의 세상이 그들에게 닥친 과제이며 시련이다.

주변인물로 <초공본풀이>의 임정국대감, <이공본풀이>의 김진국, 임진국 대감, <삼공본풀이>의 강이영성이서불, <세경본풀이>의 김진국 대감, <칠성본풀이>의 장설룡, <숙영랑앵연랑신가>의 숙영선비, <바리공주>의 대왕마마 등은 모두 나이가 들었으나 자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반동인물은 <천지왕본풀이>의 수명장자, <삼승할망본풀이>의 마마 대별상, <이공본풀이>의 제인장자, <창세가>의 석가님, <성주본풀이>의 소진랑이 있다. 이들은 재산에 대한 탐욕, 지위와 권능에 대한 탐욕, 성적 욕망에 대한 탐욕으로 시련을 겪는다. 재산에 대한 탐욕은 <천지왕본풀이>에서 총맹부인에게 쌀을 꾸어주며 모래를 반 섞어 주며, 되로 꾸어주고 말로 받는 수명장자가 있다. 지위와 권능에 대한 탐욕으로는 <삼승할망본풀이>에서 삼승할망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아이들에게 마마의 질병을 내리는 마마대별상, <창세가>에서 미륵님을 밀어내고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석가님을 들 수 있다. 성적 욕망에 대한 탐욕으로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암이를 탐하려는 제인장자, <성주본풀이>에서 황우양의 옷을 입고 황우양 부인을 탐하려는 소진랑 등이 있다.

남성 인물 가운데 주동인물들과 주변인물들은 모두 세상의 혼돈과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결여를 겪는다. 이에 반해 반동적 인물들은 세상의 이치를 거슬러 재산에 대한 탐욕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며, 인간세상에 질병을 내리며, 남의 아내를 탐하여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반동적 인물에 대한 징치는 가혹하다. 징치의 가혹함은 주동적 인물의 목표를 더욱 명징하게 한다.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물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따른다. 수명장자는 번개에 맞아 죽고, 마마대별상은 아내가 임신을 하였으나 출산을 하지 못해 결국 삼승할망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 강이영성이서불은 다시 봉사가 되어 구걸하는 거지신세로 떠돈다. 제인장자는 원강암이의 아들 신산만산 할락궁에게 죽임을 당하며, 세상을 차지하려던 석가님은 미륵님과 내기

에서 졌지만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 혼탁한 세상을 가져오며, 소진량은 황우양에게 붙잡혀 마을 앞 성황에 세워져 지나가는 길손의 짐이나 받아 먹으며 살게 된다.

2. 여자 어른의 시련

여자 어른의 시련은 15편 가운데 3편을 제외한 12편에서 드러난다. 여자 어른의 시련 가운데 주동 인물은 <천지왕본풀이>의 총맹부인,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 <도량청정랑신가>의 청정각시, <성주본풀이>의 황우양부인이 있다. 이들에게 닥친 시련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의 부재이다. 총맹부인은 천지왕이 천상으로 간 뒤 소별왕과 대별왕 아들 둘을 15세가 되도록 혼자 키우며, 여산부인은 남선비가 무곡장사를 하러 간 지 3년이 되도록 일곱 아들을 홀로 키운다. 청정각시는 혼례식도 못다 치르고 죽음의 세계로 간 도량선비를 그리워하며 남편을 만나기 위해 갖은 고초를 겪으며, 황우양 부인은 천하궁에 난간이 무너져 보수하러 남편이 떠나자 소진량에게 능욕을 당할 위기에 놓인다.

시련을 겪는 주변인물은 <삼승할망본풀이>의 동해 용녀, <초공본풀이>의 김진국 부인, <삼공본풀이>의 흥은소천궁에궁전공납, <세경본풀이>의 자지국 부인, <칠성본풀이>의 송설룡, <숙영랑앵연랑신가>의 앵연각시, <바리공주>의 칠대중전이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늦도록 자식이 없어 애를 태운다. 여성 인물들은 남편의 부재, 자식의 결여로 혼자서 자식을 낳아 키우거나, 자식이 없어 불공을 드린다. 자식을 낳아도 딸을 낳았기에 자식과 이별을 겪기도 한다. 여성인물들에게 부과된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결여로 인한 것이며, 가족의 완성을 가로막는 반동인물에 의해 시련을 겪게 된다.

반동인물은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의 처,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있다. 남자 어른의 경우 반동인물이 많은 반면 여자 어른의 경우 반동인물이 수적으로 적다. 과양생의 처와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시련을 겪는 이유는 가족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반동인물들에 대한 정치는 단호하다. 과양생의 처는 아홉 마리의 소와 아홉 노비를 불러와 신체를 아홉 군데를 묶어 갈기갈기 찢기게 되며,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신체의 각 부분을 해체하여 바다에 던지니 해삼이 되고 각다귀가 되는 등 잔인한 형벌을 맞게 된다. 주동인물들이 반동인물에게 가하는 정치는 아들을 죽이고, 남편을 빼앗거나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가족을 완성을 꾀방한 데 대한 복수라고 볼 수 있다.

3. 소년 주인공의 시련

소년 주인공의 시련은 15편 가운데 7편에서 드러난다. 소년 주인공들 가운데 주동 인물은 아버지의 부재, 가족과의 결별로 시련을 겪는다. 소년 주인공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아버지 찾기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천지왕본풀이>의 강씨대별왕과 풍성소별왕, <초공본풀이>의 잿부기 삼형제, <이공본풀이>의 신산만산할락궁이가 그러하다. 소년 주인공들은 아버지가 없음으로 인해 ‘아비 없는 호래 자식’이라는 수모를 겪으며 아비 찾기에 나선다. 이미 이름을 지어주거나 징표로서 아들과 상봉을 예기한 대별왕 소별왕, 잿부기 삼 형제, 할락궁이는 아비 찾기를 통해 장자로서 부계의 지위를 계승한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이승과 저승을 맡게 되며, 잿부기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리고 최초의 심방이 되며,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천꽃밭 꽃감관이 된다.

소년 주인공이 겪는 시련에서 가족과의 결별로 시련을 겪는 이는 <문전본풀이>의 녹디생인과 <숙영랑앵연랑신가>의 거북이와 남생이가 있다. 녹디생인의 아버지는 무곡장사로 집을 나가 3년 동안 소식이 없으며,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나가 죽게 된다. 녹디생인과 형제들은 아버지의 어리석음, 계모의 간계로 시련을 당한다. 또 <숙영랑앵연랑신가>의 거북이와 남생이는 태어나자마자 앓은뱅이와 봉사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 신체적 시련을 겪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난한 거지가 되어 시련을 겪는다. 녹디생인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혜로 첩의 간계를 폭로하고, 어머니를 살려내어 문전신이 되어 가정을 지킨다. 거북이와 남생이는 형제간의 우애와 부처님에 대한 정성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이들은 무능한 부모에 의해 해체된 가족을 자신들의 지혜와 우애로 극복한다.

시련을 겪는 주변인물로 <차사본풀이>의 버무왕 세 아들, <세경본풀이>의 정수남, 문도령이 있다. 버무왕의 세 아들은 15세에 단명한다는 운명적 시련에 의해 과양생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들의 죽음은 저승차사 강림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뿐이다. 정수남과 문도령의 경우 자청비의 지혜와 권능에 의해 구원되는 인물로 자청비를 능욕하고 시험하는 인물이다.

소년 주인공들은 아버지의 부재로 시련을 겪으며, 아버지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명령, 시험을 당하는데 아버지가 남긴 징표가 있기에 시련은 미약하다. 대별왕 소별왕의 박씨나 할락궁이의 열레빗 등은 아들임을 이미 증명하고 있기에 별다른 시험이나 시련 없이 자식으로 인정받게 된다. 소년 주인공들은 아버지를 찾고 난 다음 어머니 구원에 나선다. 할락궁이는 환생꽃을 구해와 원강암이를 구하고, 잿부기 삼형제도 어머니를 구해내며, 녹디생인도 주천강에서 죽은 어머니 시신을 건져 환생꽃으로 살려낸다.

소년주인공들의 반동인물에 대한 징치는 단호한데 잿부기 삼형제는 75척의 신칼을 만들어 삼천 선비의 목을 베어 원수를 갚는다. 할락궁이는 제인장자를 죽이고, 녹디생인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토막 내어 곳곳에 뿌린다.

4. 소녀 주인공의 시련

소녀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은 15편 가운데 7편이며, 모두 주동 인물과 반동인물의 시련이며 주변인물로 시련을 겪는 화소는 없다. 주동적 인물이 겪는 시련은 <삼승할망본풀이>의 명진국따님아기,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 <이공본풀이>의 원강암이, <삼공본풀

이>의 가문장아기,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칠성본풀이>의 칠성아기씨, <바리공주>의 바리데기가 있다. 반동인물이 겪는 시련은 <삼승할당본풀이>의 동해용왕따님아기와 <삼공본풀이>의 은장아기, 늦장아기가 있다.

소녀 주동인물이 겪는 시련의 원인은 부모가 공사 살러 가면서 가두어지고 버려지는 시련을 겪거나, 남편에게 버림받는 경우이다.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는 부모가 공사 살러 가면서 집안에 가두어지고 원강암이는 남편이 꽃감관으로 가면서 제인장자에게 종으로 팔리고, 칠성아기씨는 일곱 살에 부모가 공사 살러 가면서 방안에 갇히고, 바리공주는 딸로 태어났기에 버려진다. 소녀 주동인물의 남다른 능력으로 시련을 겪는 경우는 가문장아기와 자청비가 있다. 가문장아기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여 시련을 겪고, 자청비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다.

반동인물들이 겪는 시련으로 동해용왕따님아기는 명진국따님아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은장아기와 늦장아기는 동생 가문장아기에 대한 시련과 질투로 시련을 겪는다. 동해용왕따님아기는 꽃피우기 내기에 져서 저승삼신이 되고, 은장아기와 늦장아기는 청지네와 버섯이 되어 보복을 당한다. 소년 주인공의 반동인물들이 가족의 질서를 어지럽혀 징치를 당하는 반면 소녀 반동인물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징치를 당하게 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 반동인물의 징치는 남성 반동인물의 징치에 비해 미약하다.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다른 공간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시련의 과정

시련의 과정에서도 반복되는 서사의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결여로 인해 탐색하게 되고 모험을 겪게 되며, 결여를 찾아 완성함으로써 시련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알 수 있다. 시련의 종

류에도 동일한 화소가 지배적이다. 결여와 부재, 탐색과 모험, 회귀라는 동일한 패턴의 반복은 프로프가 마법담에서 분류한 31가지의 기능과 유사한 측면¹⁰⁾이 있다. 그러나 서사무가를 마법담에 대입하여 서사의 기능을 살핀다면 서사무가의 큰 범주를 마법담의 작은 틀 안에서 고찰하는 결과가 빚어지기에 ‘시련’을 중심으로 하여 동일한 서사패턴만 추출하고자 한다.

‘시련’을 중심으로 살핀다면 어떤 상황에서 결여와 부재로 인해 역할을 탐색하거나 시험과 봉인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반동인물에 대한 징치와 희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동일한 패턴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1. 역할 탐색

서사무가에서 시련의 주동적 인물들은 결여와 부재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게 된다. 시련의 주체들은 세상에 질서가 결여 되어 있고, 가족 가운데 일부가 결여 되어 있기에 시련을 겪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결여로 인해 주체들은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게 된다.

세상의 질서가 결여 되어 있는 화소는 <천지왕본풀이>와 <창세가>다. 천지왕과 미륵님은 혼돈의 세상¹¹⁾에서 자연의 이치를 바로잡기

10) 블라디미르 프로프 지음,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새문사, 1987, 30쪽.

1) 가족 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부재중이다.(부재, β), 3) 금지는 위반된다.(위반, δ), 6) 악한은 희생자나 그의 재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그를 속이려 든다.(책략, η), 8-a)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결여하고 있거나 갖기를 원한다.(결여, α), 11) 주인공이 집을 떠난다.(출발, ↑), 12) 주인공은 시험되고, 심문받고, 공격받는데, 그로 인해 주인공에게 작용물이나 조수를 얻는 방법을 알려준다(증여자의 첫 기능. D), 16) 주인공과 악한이 직접 싸운다. (투쟁, H), 20) 주인공이 귀환한다.(귀환, ↓), 29) 주인공에게 새로운 모습이 주어진다. (변신, T), 30) 악한이 처벌된다.(처벌, U), 31) 주인공은 결혼하고 왕좌에 오른다.(결혼. W)

11)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 옮김, 『희생양』, 민음사, 1998, 57쪽.

혼돈은 신화의 도입부의 특징으로 흔히 밤과 낮이 섞여 있고,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고 있고, 신들이 사람들 사이를 돌고 사람들도 신들 사이를 나다니

위해 고심한다. 가족 가운데 일부가 결여되어 있어 시련을 겪는 화소들은 다시 자식의 결여, 남편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 부모의 부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²⁾

자식의 결여는 주로 남자어른과 여자어른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으로 <천지왕본풀이>의 천지왕, <초공본풀이>의 임정국 대감 부부, <이공본풀이>의 김진국, 임진국 대감의 부부, <세경본풀이>의 김진국 대감 부부, <칠성본풀이>의 장설룡과 송설룡, <숙영랑양연랑신가>의 숙영선비와 양연각시 등으로 이들은 대를 이를 자식이 없어 시련을 겪는다. 이들은 자식을 낳기 위한 역할을 탐색하게 된다. 기자 정성이나 부처님께 기원하여 아들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딸을 얻은 인물들은 그 딸들에게 시련이 전가되어 여전히 아들을 낳기 위한 시련을 겪게 되며, 아들을 낳았더라도 신체적 장애를 가진 남생이와 거북이는 아들임에도 시련이 계속 이어진다.

남편의 부재는 여성 주인공에게 드러나는데 여자 어른으로 남편의 부재를 겪는 인물들은 <천지왕본풀이>의 총맹부인,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 <도량청정랑신가>의 청정각시, <성주본풀이>의 황우양부인이 있다. 소녀주인공들도 성장하여 혼인을 하거나 결연 뒤 남편의 부재를 겪게 되는 인물로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 <이공본풀이>의 원강암이,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등이 있다. 남편의 부재는 여성주인공들로 하여금 남편을 찾아 나서게 하거나, 아들들로 하여금 아버지 찾기를 하게 한다. 남편 찾기는 혼인이나 결연의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합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는 여성 주인공들

고 있다. 신과 인간, 짐승들 사이에도 분명한 구분이 없다.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쌍둥이 형제인 태양과 달은 영원히 싸우고 있다. 땅에 너무 가까이 근접한 태양은 가뭄과 흑서를 일으켜 생물들을 견디기 힘든 지경이다. 이런 신화적 도입부는 집단적 박해를 용이하게 하는 커다란 사회적 위기를 그 공동체는 무차별화의 시련처럼 겪고 있다.

- 12) 결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들이기에 결여로 보았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은 있다가 없어진 존재이기에 부재로 보았다.

이 남편을 찾아나서게 되며, 가문에서 인정하지 않는 청정각시나, 노가 단풍즈지맹왕아기씨 등은 남편 찾기에서 육체적 시련을 겪거나,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찾기로 역할을 미루게 된다.

아버지의 부재는 주로 소년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의 원인이 되며, 부모의 부재는 소녀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의 원인이 된다. 소년 주인공들은 ‘아비 없는 호래자식’이라는 놀림을 받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데, 어머니를 회유하거나 설득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캐묻는다. 소녀 주인공들은 부모의 부재로 가두어지거나 비정상적 결연을 하게 된다. 부모의 부재는 부모 없이 혼자 남은 소녀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탐색하게 한다.

세상의 조화로운 질서가 결여되어 있거나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재 중일 때 시련이 출발한다는 것은 시련을 통해 조화로운 질서를 회복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부재나 결여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결여를 기자정성을 통해 자식을 낳는 것으로 극복한다면, 소년 주인공과 소녀 주인공들은 가족 구성원의 결여를 구성원 찾기라는 구체적 시련을 겪는다.

2. 역할 인식

세상의 조화로운 질서가 결여되어 있고 가족 구성원 중의 결여와 부재로 주체들의 역할 탐색이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주체들이 시련을 겪는 단계로 나아간다. 남성 주체들은 시험이나 명령이라는 정신적 시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여성 주체들은 봉인되고 쫓겨나거나 육체적 훼손, 죽음으로 시련을 겪는다. 남성 주체들과 여성주체들은 정신적, 육체적 시련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남성 주체들은 세상의 이치를 바로 잡고 가족의 결여를 극복하여 부계의 정통을 잇는 반면, 여성 주체들은 이전의 가족에서 떨어져 나와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여 가족을 완성 역할을 하고 있다.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의 종류는 다양하다. 크게 정신적 시련과 육체적 시련으로 양분해 볼 수 있는데 정신적 시련은 내기나 포함하는 시험이나 명령 등 언어로 전달되는 것이라면, 육체적 시련은 봉인, 쫓겨남, 장애, 죽음, 신체적 훼손 등¹³⁾이다. 이런 정신적, 육체적 시련을 더 큰 범주에서 본다면 개인적 시련과 사회·역사적 시련으로 확대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사무가에서 주체들이 겪는 시련으로 한정하기에 개인적 시련의 범주에서 정신적, 육체적 시련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시험과 명령은 주로 주체가 서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하게 한다. 시험은 주인공의 능력을 가늠하게 하는 것으로 내기나 과제를 포함한다. 남성 주인공으로 <초공본풀이>의 잣부기 삼형제는 과거를 통해 삼천선비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차사본풀이>의 강님은 염라대왕으로부터 시험을 받아 차사로 능력을 검증받는다. 여성주인공이 겪는 시험의 경우 <초공본풀이>에서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는 손톱으로 뱀씨를 까라는 주자 선생의 시험을 받는다. 이는 아내로 능력을 시험 받는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문도령과 혼인 앞두고 신자 구덩이를 파고, 숲 신 섬에 불을 피워 작두 칼날을 타야 며느리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명령은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험이며, 명령은 주체들에게 과제가 된다. 남성 주인공들에게 명령은 명령을 수행할 인물들의 권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성 주인공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은 이승

13)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8. 311쪽.

장시광은 시련을 ‘고난’으로 정의하면서, 고난을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 사회적 고난의 층위로 나누어 분류하며, 육체적 고난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육체의 조화로운 상태가 무너져 고통을 받는 것을 말하며 병이 들었거나 사건이나, 사고, 가혹한 노동과 형벌로 고통을 받는 것이라 하였다. 정신적 고난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아 생기는 고난으로 갑작스런 충격과 고뇌 등이 있으며 사회적 고난은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받는 고난으로 소외받거나 버림 당하거나 추방 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을, 소별왕은 저승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천지왕에게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여성 주인공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남편과 아버지다. 아내에게 딸을 버리도록 일방적으로 명령하여 어머니 노릇을 강제적으로 박탈한다. <바리공주>의 대왕마마도 칠대중전에게 바리테기를 버리라고 명령한다. 신하에게라도 보내자고 설득하지만 대왕마마의 호령에 눈물만 흘리며 아기를 버려야 했다. 남성주체들 겪는 명령과 여성주체들이 겪는 명령은 다르게 실현된다. 남성주체들은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것이라면, 여성주체들의 명령은 남성주체들의 권위에 저항하지 못하는 비주체적인 역할로 인식된다.

소녀 주인공들은 소년 주인공에 비해 육체적 시련을 주로 겪는데 가두어지거나 버려지거나 쫓겨나는 시련을 겪거나 육체적 훼손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무쇠석함이나 옥함에 갇히거나, 집안에 갇히는 것을 봉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의 관계에서 분리를 의미하며 십오 세에 이르러 분리되는 것을 입사식의 의미로 보기도 한다. 예로 동해용왕따님 아기와 바리테기, 칠성아기씨는 무쇠석갑이나 옥함에 가두어져 버려지며,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와 칠성아기씨는 임신하여 쫓겨나며,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모두 세 번이나 쫓겨난다.

육체적 훼손이나 장애가 드러나는 서사무가는 <도량청정랑신가>의 청정각시, <삼공본풀이>강이영성이서불, <숙영랑앵연랑신가> 남생이와 거북이를 들 수 있다. 청정각시는 남편 묘 앞에 첫날밤 이부자리를 펴고, 신부 옷을 입고 3일동안 기도를 한다. 또 머리카락을 뽑아 삼천발 삼천 마디가 되게 노를 꼬아 안내산 금상절에 한 끝은 법당에 걸고 한 끝은 공중에 걸어, 두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 삼천동녀가 올려 훑고 내리 훑어도 아프단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참깨 닷말, 들깨 닷말, 아주까리 닷말로 기름을 짜서, 소지공양으로 발원하며 안내산 금상절에 가는 고갯길을 기물 없이 치도하는 육체적 시련을 겪는다.¹⁴⁾ 강이영성이

14) 한양하, 「<도량선비 청정각시>에 나타난 혼사장애와 시련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30집, 2010.

서불은 봉사가 되고, 남생이와 거북이는 앓은뱅이와 봉사로 태어나는 시련을 겪는다.

죽음의 시련을 겪는 서사무가는 남녀 주인공 모두에게 드러난다. 과양생에게 죽임을 당하는 <차사본풀이>의 버무왕의 세 아들, 노일제대 귀일의 딸에게 죽임을 당하는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이 있다. 또 <세경본풀이>의 정수남은 두 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나며, 문도령 또한 정변으로 살해 당했으나 자청비가 황새근감 꽃감관의 땅에서 꽃을 가져와 살려낸다. <도랑청정랑신가> 도랑선비 역시 혼례도 치르지 못하게 죽게 되는데 조부의 탐재살민한 죄로 인한 것이며, 청정각시는 남편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바리공주> 대왕 마마와 칠대중전은 자식을 버린 죄로 한낱한시에 병들고 죽게 된다. 서사무가에서 죽음은 일시적이며, 구원자에 의해 구원되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구원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버무왕의 세 아들을 구원하는 강림, 도랑선비를 구원하는 청정각시, 여산부인을 구원하는 녹디생인, 부모님을 구원하는 바리공주의 권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년 주인공들보다 소녀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의 강도가 높다. 여성 주인공인 <이공본풀이>의 원강암이는 꽃감관 벼슬 살러가는 사라도령과 헤어지면서 종으로 팔려 제인장자에게 능욕을 당하며,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도 정수남에게 능욕을 당한다. <칠성본풀이>의 아기씨도 산길에서 스님에게 희롱당하고 문 밖의 노뚝돌 아래 숨겨지고 집에서 쫓겨난다. 이처럼 소년 주인공보다 소녀 주인공들에게 육체적 시련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강도 높은 시련을 통해 막강한 권능으로 신직을 수행하게 됨을 뜻한다.

3. 역할 수행

서사무가에서 남성 주인공들과 여성 주인공들은 모두 신직을 부여 받게 되는데 남성과 여성주인공들은 시련을 극복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

하는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남성 주체들은 반동인물에 대한 단호하고 엄격한 징치로 역할 수행을 한다면, 여성 주체들은 자기 희생과 포용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남성주체들의 반동인물에 대한 단호한 징치가 드러나는 서사무가는 <천지왕본풀이>, <이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성주본풀이>가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왕은 벼락장군과 우레장군, 화덕장군을 보내 불을 지르며, 수명장자의 딸은 자루가 부러진 숟가락을 향문에 찢러 팔 벌레로 변신시키고, 수명장자의 아들은 마소 물을 안 먹었기에 술개로 환생시켜 부리가 꼬부라지게 하여 비 온 뒤 날개물이나 훑아 먹게 한다. <이공본풀이>에서 제인장자는 원강암이의 아들 신산만산할락궁에게 죽임을 당하며, <차사본풀이>에서 과양생 부부는 아홉 마리의 소와 아홉 노비를 불러와 신체를 아홉 군데를 묶어 갈기갈기 찢기게 되며, <성주본풀이>에서 소진량은 황우양에게 붙잡혀 마을 앞 성황에 세워져 지나가는 길손의 침이나 받아 먹으며 살게 된다. 잿부기 삼형제는 75척의 신칼을 만들어 삼천 선비의 목을 베어 원수를 갚는다. 잿부기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려다가 천하대궐을 지키게 하고 자신들은 무조신이 된다.

여성 인물들은 자기 희생으로 권능을 확보한다. <도량청정랑신가>의 청정각시와 <바리공주>의 바리데기는 자기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청정각시는 네 번의 시련을 겪고 결국 남편을 만나 화락하게 사는 길은 죽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어 천상에 이른다. 부부로 행복하게 살기위해 청정각시는 도량선비에 비해 육체적 시련을 홀로 겪으며, 바리공주는 부모님을 살릴 수 있는 약수를 구하기 위해 물 삼 년, 불 삼 년, 나무 삼 년을 해 주고 결국 아들 일곱까지 낳아주고서야 부모님을 구할 수 있다. 여성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희생으로 감당해 낼 때 권능¹⁵⁾을 얻게 된다.

15) 르네 지라르 저,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7. 희생제 의는 인간이 연쇄적 복수를 피하기 위해 사용해진 방법의 하나로 폭력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으며 희생제의에는 폭력의 속성이 숨어 있다고 보았다. 그

여성 인물들 가운데 포용으로 권능을 얻는 이는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와 <세경본풀이>의 자청비가 있다. 가문장아기는 누구 덕으로 사느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내 배꼽 아래 선그릇의 덕으로 산다’는 말로 쫓겨나지만 봉사 잔치를 열어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한다. 자청비는 자신을 능욕하려 했던 정수남을 살려내고, 무능력한 문도령을 살려 내어 땅 세상으로 내려와 농경신이 된다.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포용에는 자기애와 지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가문장아기는 자기 복에 산다는 자기애와 남편을 고르는 데 효라는 기준으로 셋째 마통이를 얻을 수 있었던 지혜로운 인물이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동문수확하기 위해 남장하여 배움의 길을 나서며, 정수남의 능욕을 지혜로 막아내고, 하늘에서 일어난 정변을 막아낸다.

소년 주인공들이 반동인물에 대한 단호한 징치로 부계의 권능을 계승한다면, 소녀 주인공들은 반동인물이나 주변인물들을 포용하고 자기희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낸다.

IV. 시련의 의미

1. 존재의 자각

서사무가의 주체를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시련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서사의 기능에 따라 주동인물, 반동인물, 주변인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각 인물들은 서사에서 시련을 겪는 양상들이 다름을 보였다. 생명을 가진 한 개체로서 성별에 따라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나이 따라 어른이거나 아이이거나 객관적 존재가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사무가에서 결여나 부재로 인해 역할 탐색을 하면서 각 인물들은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아들이거나 딸로 존재를 자각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희생의 사회적 의미보다는 개인적 권능의 실현에 중심을 두고 보았다.

이는 가족이데올로기라는 틀 안에서 주어진 존재의 자각이기에 주인공들은 시련을 겪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과 딸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게 되며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¹⁶⁾하게 된다.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들은 사십이나 오십이 되어도 자식이 없는 결여를 겪고, 소년 주인공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소녀 주인공들은 부모의 부재로 봉인되어 버려지거나 쫓겨나는 시련을 겪는다. 이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아들과 딸의 역할을 가지며,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 아들과 딸이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다.

남자 어른과 여자 어른은 자신의 가계를 계승할 아들이라는 존재를 간절하게 바란다. 아들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식의 바탕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아들과 딸들은 이 부계 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다.

<초공본풀이>의 임정국 대감이나 <이공본풀이>의 김진국, 임진국 대감, <세경본풀이>의 김진국 대감, <칠성본풀이>의 장설룡과 송설룡 등의 부모 세대들은 모두 자식의 결여로 대를 잇지 못하는 근심을 안고 있다. 이들은 아들 낳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처님께 기차정성을 다하지만 백 근에서 한 근의 정성이 부족해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 원강압이, 자청비, 칠성아기씨를 낳게 된다. 한 근의 정성이 부족해 딸을 낳았다는 것은 아들로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의 표현이다. 그렇기에 딸들에게는 시련이 예고된다. 대표적인 예로 <이공본풀이>의 가난한 김진국 대감은 임진국 대감의 도움을 받아 정성 올려 아들을 낳았지만 임진국 대감은 정성이 부족해 딸을 낳게 된다. 아들

16) 강은혜, 「<바리테기> 형성의 신화심리학적 두 원리」, 『계명어문학』,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984.

강은혜는 바리테기의 명명 자체가 견고한 가부장제 상황으로 바리테기의 속명을 강요한 가족제도, 도덕, 풍토에 대한 지극히 냉엄한 선언으로 보았으며, 바리테기의 상징은 버려진 존재로서 실존을 인식한 여인의 공감대에서 태어난 인물이며,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인물의 개성화 과정으로 보았다.

로 태어난 사라도령은 꽃감관이 되어 떠나지만 딸로 태어난 원강암이는 종으로 팔려 제인장자에게 능욕을 당한다.

딸로 태어난 존재들은 아들에 비해 한 근이 부족한 연유로 시련을 겪게 되는데 딸들은 다시 아들을 낳음으로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의 틀 안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노가단풍즈지맹왕아기씨는 갯부기 삼형제를 낳고, 원강암이는 할락궁이를 낳고, 바리공주는 일곱 아들을 낳음으로써 버려진 딸에서 구원받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들은 딸들처럼 시련을 겪게 된다. <숙영랑앵연랑신가>의 거북이와 남생이는 앞을 못 보거나 앞은뻥이로 살아가야 하기에 불완전한 아들이다. 부모는 화병으로 죽고, 가난하여 거지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형제의 우애와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다. 이들은 부계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 속에서 불완전한 아들로 존재하기에 시련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이데올로기 안에서 존재의 자각이란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야하는 의무를 가진 존재이며, 대잇기는 아들을 통해 가능하다. 그렇기에 부계 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 속에서 백 근이 다 찬 아들과 한 근이 부족한 딸의 서사가 만들어지며, 한 근이 부족한 딸은 다시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2. 가족의 완성

부계 중심의 가족이데올로기는 가족 구성원의 결여로 시련이 발생하며, 가족 구성원의 완성으로 시련을 극복한다. 가족완성에 관여하지 않는 무가는 <창세가>와 <사만이본풀이>다. 천지창조에 대한 종교적 해석인 <창세가>와 장수의 욕망을 지닌 인간적 해석인 <사만이본풀이>를 제외한 13편의 서사무가는 가족 구성원의 결여를 극복하는 무기이다. 13편의 서사무가에서 가족은 부부 중심의 가족과 부모와 자녀 중심의

가족과 3세대에 걸친 가족의 구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부부 중심의 가족은 <도량청정랑신가>, <성주본풀이>가 있다. 부모와 자녀 중심의 가족은 <천지왕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숙영랑앵연랑신가> 등이 있다. 3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은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칠성본풀이>, <바리공주> 등이 있다. 3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에서 1세대인 조부들의 역할은 자식을 낳았으나 딸을 낳았기 때문에 시련의 극복이 딸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다.

부부 중심의 가족은 남편의 부재가 시련의 원인이 된다. 도량선비가 혼례를 치르고 합방도 하지 못한 채 죽게 되지만 흰가마를 타고 시택으로 가서 남편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통곡하니 하늘 옥황이 도사를 보내 남편을 만나기 위한 시험을 하게 된다. 황우양이 천하궁 보수로 잡혀가자 황우양의 부인은 소진랑에게 능욕을 당한다. 남편의 부재로 시련을 겪지만 <도량청정랑신가>에서 청정각시가 구원의 주체가 되고, <성주본풀이>에서는 황우양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황우양이 천하궁으로 보수를 떠날 때 연장의 준비에서 천하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금기를 지키도록 한 역할은 아내이며, 소진랑의 능욕에 맞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아내의 능력이다. 부부 중심의 가족 결연을 완성하는 데 아내의 역할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 중심의 가족은 자식의 결여, 아버지의 부재, 부모의 결여 등이 원인이 되어 시련을 겪는다. 자식의 결여는 기자정성으로 자식을 낳음으로 극복되며, 아버지의 부재를 극복하는 주체는 아들이다. 부모의 부재는 부모가 자식을 두고 떠나거나, 자식을 내쫓음으로 발생한다. 부모의 부재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족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부모를 찾아 가족을 완성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족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자청비가 있으며, 버린 부모를 찾아 가족을 완성하는 것은 가문장아가 있다.

3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은 1세대의 조부, 2세대의 어머니, 3세대의 자

녀들이 시련을 겪는 경우로 1세대는 자식의 결여로, 2세대는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난 원인으로, 3세대는 가족을 완성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기서 중심은 2세대와 3세대의 권능으로 가족을 완성하게 된다. <초공본풀이>에서는 3세대인 잿부기 삼형제가 가족을 완성하는 주체가 되며, <이공본풀이>에도 3세대의 활락궁이가 가족을 완성하는 주체가 된다. <칠성본풀이>에서는 2세대인 칠성아기씨가 가족을 완성하는 주체가 되며, <바리공주>에서도 2세대인 바리데기가 가족을 완성하는 주체가 된다.

13편의 서사무가는 시련을 통해 가족 구성원 중 부재와 결여의 문제를 인식하고 주인공이 가족을 구원하여 가족을 완성한다. 부부 가족이거나,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이거나, 삼대에 걸친 가족이 완성됨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신직을 받게 된다. 가족을 완성하는 주체에 따라 차이점이 드러난다. 소년 주인공인 대별왕과 소별왕, 잿부기 삼형제와 활락궁이는 가족을 완성함과 동시에 부계의 가부장적 권위를 대신하게 되며,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는다. 그러나 소녀 주인공인 가문장아기, 자청비, 칠성아기씨, 바리데기는 부계의 가부장적 권위와 지위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된다.

3. 신질서의 창조

소년 주인공들과 소녀 주인공들은 시련을 겪고 신직을 맡게 되며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부모 세대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저승은 천지왕이, 이승은 소별왕이, 무조신으로 잿부기 삼형제가, 서천꽃밭은 활락궁이, 이승의 아기 낳는 법은 명진국따님아기가, 저승 아기는 동해용왕따님아기가 맡으며, 이승에서 저승으로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차사는 강림이, 농신이 되어 풍요를 가져다주는 자청비, 재물을 가져다 주는 칠성아기, 저승세계의 만신이 되는 바리데기, 집안을 지켜주는 녹디생인 등 모든 소년 소녀 주인공들은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 거듭난다. 이들의 질서는 부모 세대의 질서와 다른 새로운 질

서¹⁷⁾를 만들어 내고 있다.

소년 주인공들은 주체적인 역할을 맡음으로 새로운 세상의 질서와 가정 질서를 만들고 있다. 소년 주인공들은 이승의 법과 저승의 법이 다르기에 이승에서 생기는 인간탐욕을 다스리며, 아버지를 찾아 부계의 혈통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어머니의 목숨을 살려내어 가족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낸다. 소년 주인공들은 어머니의 권위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새로운 가정의 중심이 된다. 잿부기 삼형제의 어머니인 노가단풍조지맹왕아기씨는 주자선생을 비롯한 삼천선비들에게 돈을 걸고 희롱하는 대상일 뿐이며, 부모의 허락도 없이 아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그런 어머니의 존재를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지위를 회복 시켜 준 이가 바로 잿부기 삼형제다.

이들 소년 주인공들은 억울한 처지에 놓인 어머니의 존재를 살려내고, 가정 질서에서 중심에 놓이게 되나 아버지에 대한 정치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어머니를 강제로 임신시키고, 버렸으며, 능욕을 받게 하였으며, 홀로 아이를 키우게 하였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 정치는 전혀 없다. 이는 소년 주인공들이 다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계 지위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아들들은 남성중심의 부계질서에서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년 주인공들이 아버지의 부재로 아버지 찾기라는 목표를 이루고 부계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만드는 세상의 질서는 아버지의 질서와 다르다. 아버지들은 무책임하게 자식을 잉태시키고 가족을 버렸다면 아들들은 가족을 찾아 구성원을 완성한다. 아들들의 가치는

17)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 옮김, 『희생양』, 민음사, 1998. 78쪽.

신화에서 항상 유죄인 희생물과 폭력적이면서도 동시에 해방적인 결말부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희생양 메커니즘의 극단적인 효력으로써만 설명될 수 있는데 희생양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설은 실제로 모든 신화의 근본적인 수수께끼를 해결해 주고 있다. 그것은 희생양에 의해 없어지든지 위태롭게 된 질서는 바로 그것을 위태롭게 한 장본인을 통해서 다시 재건되든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라는 가치에서 부모를 모시고, 악의 징치를 통해 좀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 이승을 다스리는 법을 두고, 삼천선비를 징치하고, 제인장자를 죽여 인간세상의 탐욕을 잘라내었다. 소년 주인공들은 부모 세대의 질서와 다른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내며 그 세계의 주체로 몫을 얻게 된다.

소녀 주인공들은 가두어지고 버려지고 쫓겨나서 아이를 낳아 어머니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¹⁸⁾ 버려지고 쫓겨나는 과정에서 소년 주인공들과 달리 육체적 시련을 겪으며 임신과 출산을 통해 어머니가 되거나 아내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소녀 주인공들은 소년 주인공과 달리 남편과 아들, 부모를 위하여 희생하는 존재¹⁹⁾로 살거나, 타인에게 재물이거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사회적 존재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한다. 이는 소년 주인공들이 가족의 중심에 서서 가부장적 가족이데올로기의 중심이 되는 것과 달리 어머니나 딸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맡는 것에서 더 나아가 농경신이 되거나 재물신이 되거나 저승신이 되어 세상의 풍요와 재물, 안락한 죽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명진국따남아기는 하늘 선녀들의 도움으로 출산법을 익혀 이 세상 여성들의 출산을 도와주고, 가문장아기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여 자기 복에 사는 것이라는 당찬 주장을 하여 쫓겨나지만 자신을 내쫓은 부모를 다시 봉양한다. 자청비는 학문을 하거나 남편을 고르는 데 자신의 의지로 분명한 선택을 하지만 하인 정수남을 죽이고 살린다는 이유로 쫓

18)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vol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쫓겨남은 존재전환을 예비하는 격리단계로 잠재된 신성을 발현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이는 무속신화가 여성성이 근원적 생명력으로 승양되던 신화적 관념을 보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보았다.

19) 오세정, 「무속신화의 희생양과 희생제의-〈바리테기 신화〉와 〈제석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7집, 2001. 오세정은 희생양은 유표화된 자질로 인해 박해를 받고, 그런 자질 때문에 사회질서를 회복하고 신성시 된다는 르네 지라르의 관점에서 무속신화에서 여주인공의 희생은 한 사회의 결핍된 요소, 신생의 필요가 있는 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요구로 보았다.

겨난다. 그러나 자신을 능욕하려 했던 정수남을 살리고, 하늘의 정변으로 문도령이 죽자 문도령 또한 살려내 땅 세상에 오곡을 받아 내려와 풍요로움을 준다. 칠성아기씨 또한 부모님이 공직을 맡아 나간 사이 스님에게 능욕을 당하여 아기를 가지게 되어 쫓겨나지만 일곱 딸을 낳고 재물을 늘리는 신이 된다.

소녀 주인공들이 만드는 세상은 여성들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아버지의 권위를 뒤엎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며, 남편을 고르는 데도 자신의 안목으로 남편을 고른다. 가문장아기는 마통이 삼형제의 집에서 막내가 마를 먹을 때 부모님 공양할 줄 알고, 성실한 것을 보고 남편감으로 생각한다. 자청비는 딸자식도 글을 배워 제사 지낼 때 글이라도 쓸 줄 알아야 한다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남장하여 글을 배운다. 위의 소년 주인공들이 가족 구성원을 완성하여 아버지의 지위와 권위를 누리는 반면 여성 주인공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저항하고 부모님이 결정 내리는 데 한 수 위에서 자신의 바람대로 결정한다.

소녀 주인공들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부부관계에서도 부모 세대와 달리 주체성을 지닌다. 남편이 딸을 가두어 버리라고 명령했을 때 일방적으로 따라야 했던 어머니 세대들과 다르다. 자청비와 가문장아기는 자신이 남편을 선택하고, 자식을 얻어 자식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당당한 아내로 살아간다. 칠성아기씨는 남편이 없이 혼자 힘으로 일곱 딸을 낳아 각 곳간에서 재물을 불러 먹고 살 수 있게 해 준다. 바리테기는 일곱 아들과 비리공덕 할멈, 할아범, 무장신선에게도 직능을 주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은 저승으로 가는 인간을 구원²⁰⁾한다.

소년 주인공들과 소녀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들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부모 세대들과 다른 가치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 소년

20) 김영민, 「<바리테기>무가의 신화비평적 연구-자기 실현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vol 58, 한국언어학회, 2006. 김영민은 바리테기 무가에서 나타나는 시련을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1차적 시련과 약수를 구하러 떠나는 2차적 시련으로 나누어 보면서 구약의 노정은 정신적 죽음을 겪는 행위로 자기 의식에서 벗어나 자아합일을 이룬다고 보았다.

주인공들은 무책임한 아버지들을 대신하여 결여된 가족 구성원을 구원하고 악을 징치한다. 소녀 주인공들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와 지위를 거부하며 자기의 지혜와 희생, 포용으로 풍요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

V. 나오며

서사무가들은 구비적 성격으로 인해 최초의 제의적 성격에서 불교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화소들이 개입되어 최초의 신화적 사고를 가능하게 했던 제의들은 서사무가에서 상징으로만 남게 되었다. 부재와 결여, 쫓겨남과 버려짐, 정치와 희생 등의 요소들은 오늘날에도 사회현상이나 문학작품에서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소망들이 서사무가에서 실현되고 있다. 서사무가에서 주동적 인물들이 시련을 겪고 시련을 극복하여 만들어가는 세상은 이전 부모들의 세상에 대한 전복이며, 자유로운 상상이다. 소년 주인공들과 소녀주인공들은 이전과 다른 세상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시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본다면 기존 세상으로의 통합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서사무가 15편을 대상으로 하여 서사의 화소 단위에 따라 시련의 주체와 원인, 극복 방법의 특징을 나누어 보았다. 시련의 주체들은 시련을 통해 역할을 탐색하고, 역할을 인식하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 결과 남성 주동인물들은 시련을 통해 부계질서를 확립하게 되고 여성 주동인물들은 가족 완성의 임무를 지니며, 소년과 소녀들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반면 남성 반동인물들은 부계질서를 세우는데 방해하여 징치되며, 여성 반동인물들은 가족 완성이라는 임무를 방해하여 징치되며, 소년과 소녀들의 반동인물들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어 징치된다.

서사무가의 주체들은 세상의 질서와 가족의 완성이라는 임무를 띠고

부계 중심의 질서를 만들어 간다. 남성 주인공들과 여성 주인공들은 결여된 남편을 찾고, 아버지를 찾으며, 어머니를 구하고, 가족 구성원의 완성을 이룬 다음 소년 주인공 중심의 세계를 창조한다. 이와 달리 소녀 주인공들은 버려지고 쫓겨나면서도 자기희생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이러한 시련의 원인과 과정, 극복에서 본다면 서사무가의 시련은 주체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며, 시련의 의미 또한 주체에 따라 달리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무가를 중심으로 시련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서사 또한 시대를 반영하는 양식이므로 기록문학에서 서사의 양식 또한 변모하듯 시련의 의미 또한 새로운 해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고대소설이나 현대 소설, 창작동화에 이르기까지 시련의 의미를 새로운 잣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다음 연구에 기대한다.

▷접수일 : 2011.07.30 / 게재확정일 : 2011.09.17



Abstract

The Patterns and Meanings of Hardships Observed in Narrative Shaman Songs
/ Han, Yangba

Hardships that the main characters of narrative shaman songs experience are passage rites by nature. Through the passage rites, they take the course of being incorporated into society as adults. However, the pattern of hardship is changed depending on the sufferer of the hardship, and there may be differentiation of narration according to nation-specific peculiarities. Therefore, the meaning of hardships may be understood in various ways.

In order to investigate hardships revealed in narrative shaman songs, this study examined a total of 15 narrative shaman songs including 3 in Joseonsingayupyeon, 2 in A Study on Korean Shamanism, and 10 Bonpuris in Shaman Songs in Jeju Island. In addition, the sufferers were grouped into male adults, female adults, boys, and girls.

In most cases, the cause of hardship is the absence of specific family members such as children, husband and parents. These sufferings lead the characters to explore their own roles. The main characters who have the obligation to complete the family recognize their roles and give birth to a child, look for the husband, or find the parents or save their lives.

The main characters find the meaning of their existence in giving birth to children and continuing the family line. Those who were born as girls due to the shortage of sincerity are reinstated only when they give birth to a son as an heir of the family. Boys complete the family and, at the same time, take over the father's patriarchal authority and his position. However, girls refuse patriarchal authority and position and become a heroine of a new world. While the fathers sowed seeds irresponsibly and abandoned their family, the sons find

the lost family members and complete the family, serve their parents based on the value of filial duty, and create a just world through punishing evils. Girls escape from the patriarchal order, and make decisions subjectively and lead an active life. Such boys and girls are not incorporated into established society, but are creators of new order.

Key words: Narrative shaman songs, hardships, subject, the completion of family, realization of the meaning of existence, creation of new order.

K C I